

반가운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. 미국에서 열린 제 66 회 세계 남자
골프 선수권대회에서, 우리나라의 이태희 선수가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
이태희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서른다섯
살이 될 때까지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, 포기하지 않고
꾸준히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승이라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. 가족과
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.